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유 미 옥

Stress Coping Styles and Nurse-parents Partnership

Miok Yu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University, Munkyeong,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ffecting stress coping styles on nurse-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Data were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167 pediatric ward nurses in 10 hospital located in the Gyeonggi, Chungcheong and Gyeongsan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8.0. As a results, nurse-parent partn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blem focusing coping style ($r=.39$, $p<.001$), social support navigation coping style ($r=.18$, $p=.018$), positive point of view coping style ($r=.36$, $p<.001$), relief of tension coping style ($r=.23$, $p=.002$). The significant major predictors of nurse-parent partnership were problem focusing coping style ($\beta=.335$, $p<.001$) and total work experience-less than 1 year ($\beta=.233$, $p=.004$), department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beta=-.164$, $p=.020$), satisfaction ($\beta=.151$, $p=.032$), very satisfaction ($\beta=.148$, $p=.020$)]. Problem focused coping style, total work exper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ccounted for 36.4% of variance in nurse-parent partnership. Therefore to enhance nurse-parent partnership a follow up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advanced problem focused coping style, enhanced to satisfaction of department in pediatric nurses is needed. (Korean J Str Res 2016;24:47~56)

Key Words: Stress coping styles, Nurse-parents partnership

서 론

아동간호사는 다양한 발달 상태에 있는 환아와 그들의

책임저자: 유미옥,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
☎ 36930,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Tel: 054-559-1266, E-mail: miok732000@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3, 2015, Revised January 15, 2016
Accepted February 14, 2016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모에게 폭넓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가로(Park ES *et al.*, 2013), 간호업무가 성인의 간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allery, 1997). 또한 근무환경 등이 열악할 때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잘 부응하지 못하여 부모와의 갈등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Lloyd *et al.*, 2008; Choi YJ *et al.*, 2013).

간호사들은 여러 가지 역할과 과다한 업무, 직종 간 갈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Han KS *et al.*, 2013). 특히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아동병동은 급성기 질환의 단기 입원 환아가 많아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

며, 인력부족 현상으로 간호사들이 과다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는 추세이다(Lim MS, 2014). 게다가 간호가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되는 상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모의 스트레스까지 조절해야 하므로 간호사들이 아동병동 간호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loyd *et al.*, 2008). 우리나라 아동병동에서는 주로 환자의 부모가 입원한 아동을 보살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Choi MY *et al.*, 2010) 간호사는 전문적인 근거 내에서 부모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간혹 간호사 자신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형성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 유지가 어려워지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Hawes, 2005, Kim EJ, 2013). 그러나 아동간호사는 환자 부모와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간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므로, 단순히 어떤 상황적 현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성인과는 차별화된 간호를 할 수 있어야만 하며(Choi MY *et al.*, 2010), 그들의 부모와도 파트너로서의 좋은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Choi MY *et al.*, 2014).

간호사가 근무 중 겪게 되는 의사나 동료 간호사, 보호자와의 문제, 근무여건, 개인의 가치체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간호대상자에게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할 수 있고(Majjala *et al.*, 1993), 간호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환자나 조직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SO *et al.*, 2013). 특히 아동간호사에게 있어서는 환자의 간호에 중요한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상호관계에 문제를 유발시키고 아동의 질적인 간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Choi MY *et al.*, 2010).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적 선행변인인 환경이나 개인적 요인들은 스트레스로 인지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대처행위를 통해 중재되며 그 결과로 적응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Lazarus *et al.*, 1984).

스트레스 대처행위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결과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인간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긴장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Lazarus *et al.*, 1984). 대처행위는 문제중심 대처행위와 정서중심 대처행위로 양분될 수 있는데, 문제중심 대처행위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또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서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정서중심 대처행위는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긍정적 측면에만 선별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Lazarus *et al.*, 1984). Mackintosh(2007)는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부러 피하며 적당한 선을 긋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준의 대처행위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처유형으로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사용이 간호사에게는 환자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더 유용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특히 아동간호와 부모의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가 스트레스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며, 스트레스의 근원에 적응하려 한다면 부모와의 상호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아동간호와 부모가 환아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Choi MY *et al.*, 2010).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아를 위해 부모들의 간호가 적극적으로 격려되어지고 있는 추세로(Majjala *et al.*, 2009), 아동간호사는 부모와 상호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간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협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는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Hook, 2006). 그러나 부모와의 파트너십 향상과 아동간호의 질 유지를 위해 당장 변화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라면, 간호사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기반이나 상급자나 동료의 지지, 격려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동간호와 부모의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Cho EJ, 2012), 직무만족과의 관계(Kim HY, 2015), 파트너십 영향요인(Choi MY *et al.*, 2014) 등이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반간호사의 대처행위와 업무스트레스의 관계(Han MJ, 2007; Jung MS *et al.*, 2010)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파트너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나이, 경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실무에 근거한 간호학의 지식개발은 필수적이거나(Kim HS, 2002)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아동간호사 및 간호실무현상영역의 연구는 34% (Han KJ *et al.*, 2002)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현재 지난 10년간 간호실무현상영역 연구에 대해 보고된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아동간호 중재연구는 전체의 27.7%로 그 수가 증가되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Kim JS *et al.*, 2011). 또한 2014년 1년 동안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실무연구에서 부모와 관련된 연구가 12.5%로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결과(Cho KC *et al.*, 2015)도 아동간호에서 가족중심간호에 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간호실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를 다룬 연구는 주로 성인 환자를 간호하는 일반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Kim YO, 2006; Han EK *et al.*, 2007)가 대부분이었다. 입원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수행하여 아동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오도록 하는 질적인 간호를 위한 기초로서(Espezel *et al.*, 2003; Choi MY *et al.*, 2010), 간호사가 주변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부모가 옆에서 입원기간 동안 간호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에서 간호사와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아동의 간호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그에 따른 부모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아동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아동간호사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고,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유형을 조사함으로써 아동간호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이고 치료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고안 방법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유형이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선택 및 선택 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되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예측요인의 수 16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57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되고 편중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최종 167부(98%)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기간 동안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중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익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문지 배포와 수거 시 개별 봉투를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스트레스 대처행위:** 스트레스 대처행위는 Lazarus *et al.*(1984)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Oh GS *et al.*(1990)이 번역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의 총 6개 영역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유형의 사용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Oh GS *et al.*(199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였다.

(2)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너십은 Choi MY(201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영역은 상호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민감성, 협력, 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심성의 총 7개 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93이었다.

2)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간호사와 부모의 파트너십에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넷째,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각 하위유형이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30세 사이가 114명(70.1%)으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기간은 1년~4년까지인 대상자가 72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5년~9년, 1년 미만의 순이었다. 또한 현 소아청소년과 병동의 근무기간

도 1년~4년까지가 94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9년, 1년 미만, 10년 이상의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4명(68.3%)으로 기혼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08명(64.7%)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이 68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RN-BSN,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의 순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0명(89.8%)으로 책임간호사 17명(10.2%)보다 월등히 많았다. 부서 만족도는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는 간호사가 94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불만족, 매우만족의 순이었다. 부서선택의 계기는 타의선택이 112명(67.1%)으로 자의선택 55명(32.9%)보다 월등히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근무기간(F=3.060, p=.030), 종교(t=2.492, p=.014), 부서만족도(F=8.90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보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가 높았고, Tukey로 사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s in nurse-parent partn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Variables	Category	n (%)	M±SD	t or F	p	Tukey
Age	20~30	117 (70.1)	126.59±13.30	0.237	.789	
	31~40	42 (25.1)	126.19±17.43			
	≥41세	8 (4.8)	123.00±10.03			
Total work experience (year)	< 1 (a)	21 (12.6)	133.10±15.48	3.060	.030	a > d
	1~4 (b)	72 (43.1)	126.44±11.45			
	5~9 (c)	35 (21.0)	121.46±14.46			
	≥ 10 (d)	39 (23.4)	126.79±16.83			
Work experience in pediatric nurses (year)	< 1	30 (18.0)	131.10±15.56	1.771	.155	
	1~4	94 (56.3)	126.14±13.34			
	5~9	34 (20.4)	123.53±15.76			
	≥ 10	9 (5.4)	122.78±10.92			
Religion	Yes	59 (35.3)	129.98±16.27	2.492	.014	
	No	108 (64.7)	124.31±12.68			
Marital status	Married	53 (31.7)	125.13±15.62	-0.731	.466	
	Single	114 (68.3)	126.87±13.63			
Education level	Bachelor specialized	68 (40.7)	127.00±13.00	0.231	.874	
	Bachelor	52 (31.1)	125.27±12.73			
	RN-BSN	33 (19.8)	127.18±16.03			
	Above master	14 (8.4)	124.86±21.20			
Position	General duty nurse	150 (89.8)	126.45±14.35	0.347	.729	
	Charge nurse	17 (10.2)	125.18±13.88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5 (3.0)	140.00±14.14	8.901	<.001	a,b > c > d
	Satisfaction (b)	54 (32.3)	131.24±10.89			
	Moderate (c)	94 (56.3)	124.65±14.67			
	Dissatisfaction (d)	14 (8.4)	113.64±12.18			
Select the ward motive	Self	55 (32.9)	126.07±13.49	-0.155	.877	
	Against one's will	112 (67.1)	126.44±14.69			

검정을 실시한 총 근무기간에서 1년 미만인 간호사가 10년 이상인 간호사보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가 높았다. 또한 부서만족도에서는 매우만족, 만족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 불만족인 경우보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는 총 3.34±.32점으로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문제중심 3.73±.35점, 희망적 관측 3.39±.52점, 무관심 2.98±.59점, 사회적지지 탐색 1.87±.32점, 긍정적 관점 3.27±.56점, 긴장해소 3.07±.67점으로 문제중심 대처행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총 3.72±.42점으로 영역별 평균은 상호성 3.60±.64점, 전문적 지식과 기술 3.72±.49점, 민감성 4.00±.49점, 협력 3.45±.69점, 의사소통 3.03±.56점, 정보공유 4.05±.56점, 조심성 3.66±.75점으로 정보공유 부분의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Table 2).

3.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유형과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유형인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간호사와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대처의 하위유형 중 문제중심(r=.39, p<.001), 사회적지지 탐색(r=.18, p=.018), 긍정적 관점(r=.36, p<.001), 긴장해소(r=.23, p=.002)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간호사-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처행위의 하위유형인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총 근무경력, 종교, 부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명목척도(종교, 부서만족도)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였으며, 총 근무경력도 각 근무경력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Table 2.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 nurse-parent partnership (N=167).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	Problem focusing	2.33	4.67	3.34±.32
	Wishful thinking	2.75	4.75	3.73±.35
	Unconcern	1.60	4.60	3.39±.52
	Social support navigation	1.17	4.67	2.98±.59
	Positive point of view	1.43	4.57	1.87±.32
	Relief of tension	1.50	4.75	3.27±.56
	Relief of tension	1.00	4.67	3.07±.67
Nurse-parent partnership	Reciprocity	2.32	4.97	3.72±.42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2.00	5.00	3.60±.64
	Sensitivity	2.00	5.00	3.72±.49
	Cooperation	2.17	5.00	4.00±.49
	Communication	1.00	5.00	3.45±.69
	Sharing information	1.00	5.00	3.03±.56
	Caution	2.00	5.00	4.05±.56
	Caution	1.50	5.00	3.66±.75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stress coping style and nurse-parent partnership (N=167).

Variables	Stress coping style					
	problem focusing r (p)	wishful thinking r (p)	unconcern r (p)	social support navigation r (p)	positive point of view r (p)	relief of tension r (p)
Nurse-parent partnership	.39 (<.001)	.04 (.587)	.05 (.567)	.18 (.018)	.36 (<.001)	.23 (.002)

Table 4. Affecting factors on nurse-parent partnership (N=167).

Variable	B	β	t	p	Adj. R ²	R ²	F (p)
상수	53.234		4.292	<.001	.310	.364	6.725 (<.001)
Total work experience (year)							
< 1	9.567	.233	2.903	.004			
1 ~ 4	3.817	.133	1.506	.134			
5 ~ 9	-1.398	-.040	-.483	.630			
≥ 10	-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2.379	.148	2.113	.036			
Satisfaction	4.582	.151	2.164	.032			
Dissatisfaction	-8.420	-.164	-2.344	.020			
Moderate	-						
religion							
Yes	.363	.012	.168	.867			
No	-						
problem focusing	1.727	.335	4.652	<.001			
wishful thinking	.104	.031	.449	.654			
unconcern	-.408	-.101	-1.388	.167			
social supportnavigation	.275	.067	.876	.382			
positive point of view	.668	.105	1.274	.205			
relief of tension	.886	.125	1.692	.093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15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534 ~ .860으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62 ~ 1.873으로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725, p<.001),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행위($\beta = .335$, p<.001)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총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33$, p=.004), 총 근무기간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년 이상보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가 9.567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만족도도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만족도는 보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불만족($\beta = -.164$, p=.020)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8.420만큼, 만족($\beta = .151$, p=.032)인 경우는 4.582 만큼, 매우 만족($\beta = .148$, p=.020)인 경우는 12.379만큼 차이가 있어 부서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을 36.4% 설

명하고 있었으며, 문제중심 대처행위($\beta = .335$)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형의 정도를 살펴보고, 각 대처유형이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간호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는 3.34점이었다. 아직까지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없어 병원의 모든 부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결과를 확인 해본 결과, Han MJ(2007)의 연구에서 2.40점, Lee JH(2008)의 연구에서 2.58점보다 높게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환자가 있는 일반부서보다는 아동병동의 간호사가 스트레스 대처행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간호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간호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문제중심

3.73점, 희망적 관측 3.39점, 무관심 2.98점, 사회적지지 탐색 1.87점, 긍정적 관점 3.27점, 긴장해소 3.07점으로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Min EH(2009)의 연구에서는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 2.85점, 무관심 2.75점, 희망적 관측 2.62점으로 순위로 나타났고, Lee JH(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2.92점, 긍정적 관점 2.81점, 사회적 지지 탐색이 2.76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Min EH(2009), Lee JH(2005)의 연구에서 공통점은 문제중심 대처행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아동간호사나 일반간호사들이 스트레스 대처행위로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들의 문제중심 대처행위의 점수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간호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문제해결과정과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Lee WS *et al.*, 2001; Sin KR *et al.*, 2005)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에 비해 아동간호사들의 문제중심 대처행위의 점수가 높았던 것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결과가 없어 추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각 발달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는 점과 아픈 환자로 예민해져 있는 부모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좀 더 문제중심적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3.72점으로 Cho EJ(2012)의 3.87점, Choi MY *et al.*(2014)의 3.82점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척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였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4.05점, 민감성 4.00점, 전문적 지식과 기술 3.72점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환아 간호에서 부모와 정보공유를 잘하고 있으며, 간호를 세심하게 하고, 부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도 잘 살피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Cho EJ(2012)와 Choi MY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소아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도 대상이 되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파트너십 점수가 약간 더 낮았던 것은 중환자실은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더욱 요구되는 부서이라는 점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간호사와 경력이 1년 미만인 간호사, 부서에 만족하는 간호사일

수록 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 MY *et al.*(2014)의 연구에서 부서만족도가 높을수록, Cho EJ(2013)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간호사일수록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선행 연구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종교와 부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후 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아동간호사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연관된 연구결과들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보다 1년 미만의 간호사가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좋은 것으로 나온 결과는 아직 임상 경력이 많지 않은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미숙할 수 있어도, 부모를 배려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환아를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는 적극적인 행위들을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결과로 생각된다. Choi MY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 최종학력과 직급이 높은 경우도 환아 부모와 파트너십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해당분야의 지식이 증가하고 업무에 자신이 생기면서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간호사-부모 파트너십 연구가 국내에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장을 통한 일반적 특성을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동간호사들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유형과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의 상관관계에서는 문제중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의 대처행위를 많이 할수록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교적 적극적 측면의 대처행위를 사용하는 간호사들이 아동간호중재에서 중요한 부모와의 파트너십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서적 측면의 무관심 대처행위의 사용은 간호사가 환아나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 개인의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사용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문제중심 대처행위, 총 근무경력, 부서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의 36.4%를 설명하였고, 그 중 문제중심 대처행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

처행위는 내적, 외적 요구와 갈등을 감소시키며 참아 내고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의지적이고 행동적 노력으로(Jung SY *et al.*, 1993), 특히 문제중심 대처행위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갈등적 관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다(Lazarus *et al.*, 1984). 따라서 이러한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사용하여 근무 중 스트레스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아동간호의 질을 높이고, 또한 아동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인식을 확인한 Oh MJ(2000)의 Q방법론 연구에서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한 긍정적 동의를 했고,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처능력과 강인성,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통해 효율적인 직무교육의 측면을 제시한 Hwang SY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할수록 강인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병원종사자의 강인성이나 조직몰입 측면에 문제중심 대처행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제중심 대처행위가 정서중심 대처행위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Kim NS, 2007)는 아직까지 간호사나 아동간호사 또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기존에 부분적으로 연구된 대처행위와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여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총 근무경력은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파트너십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는 1년 미만의 경력이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oi MY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ng EY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비슷한 환경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아동병동은 인력문제로 주로 기능적 간호업무분담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이로 인해 해당 근무에서 아래 연차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와 많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업무 방법의 차이와 설문조사 시 신규간호사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 총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간호사가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로 추측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부모 모두에게 파트너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아동간호사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추후 부모와 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근무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행위를 할 때 환자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와 총 근무경력, 부서만족도도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이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동간호사 개인이 지각하는 파트너십만을 파악하고 부모가 지각하는 파트너십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정도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행위 정도 및 스트레스 영역에 따른 대처행위, 부모가 지각한 파트너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간호사들이 환자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와 아동병동의 부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Callery P (1997) Caring for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A hidden area of nursing work. *J Adv Nurs*. 26:992-998.
- Cho EJ, Bang KS (201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Child Health Nurs Res*. 19:94-101.
- Cho KC, Lee YE, Oh SE *et al.* (2015) Trend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 *Child Health Nurs Res*. 21:347-354.
- Choi MY, Bang KS (2010) Quality of pediatric nursing care: Concept analysis. *J Korean Acad Nurs*. 40:757-764.
- Choi MY (2012)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scal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MY, Kim JS (2014) Associated factors in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Child Health Nurs Res*. 20:176-184.
- Choi SO, Kim JH (2013)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nurs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7:142-152.

- Choi YJ, Bang KS (2013) Nurses' perception on trust between nurses and hospitalized children. *Perspect Nurs Sci.* 10:1-11.
- Espezel HJ, Canam CJ (2003) Parent-nurse interaction: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J Adv Nurs.* 44:34-41.
- Han EK (2007) A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method by the personality types of clinical nurses. *Journal Korean Clini Nurs Res.* 13:125-136.
- Han KJ, Kim HA, Kim SY *et al.* (2002) An analysis of the concepts in child health nursing studies in Korea (1): from 1990 to 2000. *Korean J Child Health Nurs.* 8:449-457.
- Han KS, Choi MY (2013) Experience of job stress-coping in health care professionals. *Korean J Str Res.* 21:282-292.
- Han MJ (2007) A study on the work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the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Hawes R (2005)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family. *Paediatr Nurs.* 17:15-18.
- Hong EY, Yang YJ (2015)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pediatric nurses: focusing on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Child Health Nurs Res.* 21:236-243.
- Hook ML (2006) Partnership with patients: A concept ready for action. *J Adv Nurs.* 56:133-143.
- Hwang SY, Seo EH, Park SI (2013) A study of relationships hardiness, coping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employees. *J Korean Acad Nurs.* 19:196-206.
- Jung MS, Park HY (2010) Job stress and coping measures of nurses in the national general hospitals. *Sungshin J Health Sci.* 3:5-24.
- Jung SY, Yang JH (1993) A study on types of stress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23:269-283.
- Kim EJ (2013) The relationship among ego-stage and job stress of nurses at pediatrics. *J Str Res.* 21:31-40.
- Kim HS (2002) Approaches to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Korean J. Nurs Query.* 11:55-68.
- Kim HY (2015) Influence of nurse-parent partnership and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in pediatric nurses. master's thesis. Chosun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JS, Lim JY, Kwon IS *et al.*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2005-2009). *Child Health Nurs Res.* 17:100-110.
- Kim NS (2007)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optimism and coping skills. *Korean J Adult Nurs.* 19:719-728.
- Kim YO (2006)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operating room nurses. master's thesis. Ajou National University, Suwon.
- Lazarus RS,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JH (2008)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f nurses by clinical ladder. master's thesis, Yonsei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WS, Park MY (2001) The process of pbl package developm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7:126-142.
- Lim MS (2014) Effects of perception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pediatric nurses. master's thesis, Kosin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loyd M, Urquhart G, Heard A *et al.* (2008) When a child says 'no':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with children having invasive procedures. *Paediatr Nurs.* 20:29-34.
- Mackintosh C (2007) Protecting the self: A descriptive qualitative exploration of how registered nurses cope with working in surgical areas. *Intel J Nurs Studies.* 44:982-990.
- Majjala H, Luukkaala T, Astedt-Kurki P (2009) Measuring parents' perceptions of care: Psychometric development of a research instrument. *Journal Family Nurs.* 15:343-359.
- Maslach C, Schaufeli W (1993) Historical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burnout. Washington D. C.: Taylor & Frances.
- Min EH (2009)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f nurses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and department.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O GS, Han JS (1990) A study on the grief and coping pattern of mothers who have a chronically ill child. *The Korean nurs.* 29:73-88.
- O MJ (2000) A factor analysis of the perspective on the coping strategies about pract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 *Child Health Nurs Res.* 6:423-436.
- Park ES, Park IS, Park HR (2013) Nursing care of children. Seoul: Hyunmoonsa.
- Shin KR, Ha JY, Kim K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5:382-389.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유형이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 위치한 10개 병원의 아동병동에서 근무하는 167명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대처행위의 하부영역 중 문제중심 대처행위($r=.39, p<.001$), 사회적 지지 탐색($r=.18, p=.018$), 긍정적 관점($r=.36, p<.001$), 긴장해소($r=.23, p=.018$) 대처유형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유의한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문제중심 대처행위($\beta=.335, p<.001$)와 총 근무경력-1년 미만($\beta=.233, p=.004$), 부서만족도[불만족($\beta=-.164, p=.020$), 만족($\beta=.151, p=.032$), 매우 만족($\beta=.148, p=.020$)]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행위, 총 근무경력, 부서 만족도는 간호사와 부모 간의 파트너십을 3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간호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자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중심 대처행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또한 아동간호사의 부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스트레스 대처행위, 간호사-부모 파트너십